

<論 說>

## 合理的家畜病院運營

—家畜病院革命論—

鄭 益 鎔

卒直한 이야기가 되려면 차라리 獸醫師革命論이라는게妥當할련지 모르겠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論難되는 이 나라에 있어서의 獸醫師養成排出의 質量均衡問題로 보더라도 좀더 알찬精選된 限界需要內에서의 養成이 이루어진으로서 이런 家畜病院 革命論 따위의 妥當한 소리가 안나오도록 이 땅이 分野의 樣相이 그야말로 하루빨리近代化되었으면 하는 慈願에서부터 모든問題가 派生되기 때문이다.

엉뚱한比較일련지 모르나 그래도 2.88%라는 엄청난 人口增加率을 背景으로하고 있는 人醫나藥師들의 過剩排出은 우리와 경우와 相對的으로 볼 때 樂觀의 바탕수 있다.

家畜增殖動態가 年年莫%의 增殖率을 나타내고 있는지의 實事上의 正確한統計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있지 못한것이 내寡聞의 잘못이겠지만 아무튼增加한다해도 앞서 말한 人口增加率에는 脱然未達할것이 뻔한事實이고 보면 우리와 경우는 醫師나 藥師 양반들의 그것보다는 相對的으로 脱然悲觀의이며 따라서 一層奮發하여各方으로 우리와合理的인活路를 打開해 나가야 할것으로 단파近者에와서 “近代化”나 “體質改善”이니하는 말들이 前에 없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본다.

原始的經濟라 할까 前近代의要素가近代的要素보다 그二重構造에 있어 壓倒的으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所謂後進國(나亦是 이 늘의 後進國이 卽 爲)이 아예 못마땅한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래서 先進後進을 꿰 物質文明基準으로 단 놓고 都賣金으로 넘겨버리는가하는 못마땅함이다. 일례로 우리는 低資本國이라고는 할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文化面마저 어찌하여 後進國의 굴레를 뛰집어 써야 하느냐(같이다)들속에서 거의革命의 覺醒을促求하는 말로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간다.

네트로란트의 「부케」가 「東洋社會의 特質은 利潤追求의 거의 完全한 缺如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꼭 옳고 그르고간에 일단 우리로서 생각해 볼만한 價值가 있는 말임엔 틀림이 없다.

하기야 「부케」가 들으면 無色할 程度로 남의 것이건

나타것이건 차구호랑이 날고기 먹듯하는 投機追求水準이 평장히 높은 분들도 요즈음 많이 눈에 뜨이기는 하지만 오늘날까지의 우리와 모든 分野가 特히 經濟性을 뛴 모든分野가 거의 不耗의 領域으로 放置되어 있다시피하여 내려온 것은 事實이다.

우리들은 이 線索를 진각개 달고 克服하는 賢明을 우리것으로 할줄 모르고 이제 겨우 破局의 危機가 우리코앞에 다달았을때이 “近代化”에 技車를 加하고 나섰다는 애달픈느낌이다.

表題와는若干 빗나간듯한 이런 長廣舌을 늘어놓은理由인즉 이 땅의前述한總體의 不合理 속에 그中에서 또 가잖뉘열어진構造에 등대고 입차례를하고 있는 우리 臨床獸醫分野가 그覺醒의 要求性에 있어서 祖國의近代化作業과 더불어 實로 重大한 歷史의 時點에 놓여있다는 것을 強調하고 싶었던 때문이다.

우리가 家畜病院經營에 있어서 所謂東洋의이며 後進의이며 前近代의 낡은 方式을 그야말로 革命의 創意力과 慾意를 가지고 脱皮하여 家畜病院의近代化即 家畜病院經營의合理화 및 科學化에 總力を 다해야 할時期는 지금바로 우리 앞에 닥쳤다.

또는 分野가近代化를 向해 總進軍할 때 우리만이 홀로 悠悠度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萬一 그러다가는企業意慾에 있어 相對의 東洋愚를 우리 스스로가 다시犯하는結果가 될 것이다.

그러면 家畜病院의合理的科學的經營이란 무엇인가 「부케」가 말한 利潤追求란 어디까지나合理的인 利潤追求를 말하는 것일진만 家畜病院經營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合理的인 利潤追求를 어찌하면 極大化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에 彙結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利潤이란 말을 고집어내는데 對해 엉뚱하다고 나무랄분이 계실지도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家畜病院이 무순놈의 生產業이거나 販賣業이거나 그어느 것도 아닌데 利潤이란 말이 成立될 수 있느냐? 家畜病院이란 養畜家에 奉仕하는 하나의 聖業의인 技術供給源일 뿐이다라고 反駁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奉仕！” 그렇다 훌륭한 語彙다. 勿論 오늘날 어떤 利己的인 私企業도 社會奉仕精神에 完全히 駐가됨한 利潤의 極大化를 이룰수는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의 認識이 옛적과는 달리 變貌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적어도 資本主義社會의 範疇안에서 우리가 生業을 营爲할 때 오늘날과 같이 그리고 特히 우리 땅과 같이 諸般經濟의in 與伴이 複雜하고 尖銳化되어 있는 極甚한 生存競爭事態下에서 는 우리의 一舉一動에 가장 敏感한合理的인 利營意識이 介在되지 않고서는 삶건 좋건 배려나갈 도리가 없는 것이다.

손쉽게 말해서 오늘날 仁術을 標榜하는 企業經營의in 綜合病院들을 보라.

항상 우리는 經濟的動物을 對象으로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런理由로해서 우리家畜病院들은 利潤追求에 보다 敏感하라는 것이다.

그러한方向으로 一大革命運動을 일으켜야겠다는 것이다

自身들의 手足兄弟이나 技術이나 經營方式을 낡은 그대로 두고 어찌 跳躍이나 革命이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당시나

그러나 甚히 惱懼스러운 말이지만 이 땅 家畜病院의 概略의in 現況은 그야말로 “跳躍”的 발판을 지니고 있지 못한느낌이 많다.

資金確保體系의 亂張貧困性, 施設規模의 零細性, 理論 및 技術姿勢의 非進取性, 買入賣出過程에서의 經濟的選好의 等閑性 더 나아가서는 顧客增大를 피하기 위한 諸 PR와 씨-비스活動까지를 包含한一切의近代的合理的經營體制에서 隔離되어 있는 感이 짙으라는 것이다

「사람이 저 아니으로고 떠난다 하더라」에서 보는 諸念과 依存意識의 愚를 내 스스로가 犯하는 말을 끄집어내는 格이 될 뿐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基本施設面에 있어서 먼저 革命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政府關係當局의 果敢한 跃 발침이 이의 革命的轉換點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跳躍의 발판만은 構築해놓고 봐야 할 問題이기 때문이다

우리社會構造의一般的俗性으로보아 驢醫系列出身學徒가 大體로 施設資金調達에 그다지 넉넉할수는 없는 일이며 지난몇해의 나의 見聞을 通해서보더라도 그려 하다.

이러한 事情을 參酌해서인지 1963年에 家畜病院施設資金融資가 政府의 特別配慮로 全國에 걸쳐 一座當 5萬 원單位로 100個所의 家畜病院에 내려졌다.

實로 革期의in 處事이기는 했다.

그리고 이것은當時의 重農政策<sup>重農政策</sup> 바람tan 一時의 스몰케이스融資봉으로 끝나버렸다.

그것으로 果然 家畜病院施設들은 期待할만한 革新의契機를 이루었던가.

遺憾스럽게도 그것은 目的追求의 動機나 設計 그리고 個個人의 資金管理의 非合理性 때문에 「봉사감 자나마나」가 되고 말았다

첫째로 政府의 投融資政策을 充分히 跃 발침할 만한 資金事情이 만족치 않아 그런 줄은 짐작하지만 아무리 亂張貧困性을 設定해 놓았던 그 그런額數로서는 徒前의 前近代의in 家畜病院施設의 零細性을 脫皮하는데決定的인도 음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마저가 비둘어진 融資事務들에 依해서 짓밟히고 말았으니 말이다.

이것은 餘談이지만 하도 신기하기에 잠간 言及치 않을 수 없다.

다름아니라 어떻게 하다보니 이 榮光스러운 融資惠澤을 나자신도 한독입었었다.

그것도 五年据置라기에 고맙게여기고 썼다.

처음 契約節次에 있어 農協職員이 分明히 내가 請하지도 않는 代書業者를 그의 一方의 意思에 依해 電話로 불러 놓고서는 그가 나타나기도 前에 「모든건 代書業者한테 말길래니 先生任은 바쁘실텐데 여기 도장만 찍고 가시지요」라고 親切을 베풀었다.

정말 革命後의 民願書類取扱이 一新되었고나 하는 素朴한 생각으로 도장만 누르고 돌아선 것이 千秋의 恨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1年後에 分割元金 萬원과 利子를 갖어오라고 날벼락이 내려졌다.

이게 웬일인가고 農協에 가서 農林部長官으로부터 農協中央會會長으로 보내진 融資要綱을 어찌 無視하느냐고 따졌다니 答曰 그건 어디까지나 要綱이지 우리의 資金事情에 依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게고 「先生任께서 여기 契約書에 그렇게 해도 좋다고 도장을 누르지 않았습니까?」

特惠融資니 便他니 120억원이란 延滯(產銀除外)니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나의 이런 處地는 下水溝에 앉아서 銀河水를 바라보는 格이라 할까 아무튼 내 평생 다시는 이 창피하고 슬픈 “傳說”을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 지난일은 지난일이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좀 올바로 해나가 볼 수 없을 것인가.

바야흐로 全面近代化를 위한 資本들이 外資內資를 總網羅해서 안간힘이 다가올어질 側面에서 있나보다.

잔치판에 나도박하나 더먹겠다고 법석을 떨어서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關係當局者들에게 부디 당부하고 싶은 것은 家畜病院施設의近代化를 위한 投融資措置를 단 한 번만이라도 실속있게 果敢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소원이다.

그러자면 于先 施設近代化 基準設定을 위한 어떤 모델케이스와 計數的인 設計가 必要할 것이다.

그리하여 總需要資金의 대우리內에서, 自體資金融通可能性의 全般的인 水準을 參酌하여 一個病院當의 融資額을 決定짓는 方向으로 取扱되어 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策定된 滿足할만한 資金이 確保되더라도 資金管理를 하는 院長任들의 “아이디어”가 貧困할때는 所期의 目的達成은 期待할수 없을 것인즉 資金의 重點的인 挑入方向과 節次를 다른 模範的인 族設들의 比較參觀에 依해 自體實情에 알맞도록 調整設定해야 할것이다.

이에는 綜合的인 經營眼目이 必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大韓獸醫師會나 地方獸醫師會는 이런 경우의 그들에게의 좋은 “아이디어뱅크”가되어 줄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럼 施設規模는 大概어떤 程度라야하겠는가  
그야 그地域의 與件에 따라 여려格差가 있을 수있는 問題이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研究檢討할때면相當히 긴 글이 되어야겠기에 此後로 미루기로 하고 最惡의 경우 서울과같은 都市에서는(그것도 都心地와 邊두리와의 差는 있겠으나) 看板하나 제대로 멋있게 달지 못한 취구멍과 같은 面積의 그것도 内部에 衛生的感覺을 풍겨줄만한 색칠하나를 않고 응당 갖추어져 있어야 할 집기나 기재약품은 없는게 있는것보다 더 많고 온통 거미줄과 먼지가 支配를 하고 있는 그런 家畜病院은 없어 져야겠다.

農村에 있는 家畜病院들에서는 室內施設도 重要하지만 大多數의 경우 雨天下에서도 手術을 할수있을 만한 堅固한 保定하나가 아쉬운데가 아직도 많다.

飼料가개 옆의 취구멍만한 방앞에 退色한 看板을 달고 있던 往年の 그것과 類似한 家畜病院은 지금쯤 다 없어졌는지

아무튼 關係當局에서도 前과달리 이 施設基準에 對해相當히 嚴格한 措置를 取하고 있지만 아직도 該當市郡에서 그 開設申告書가 施設未達의 理由로 返戻된 家畜病院의 看板이 施設基準쯤아랑곳 없다는 듯이 尚存해 있는 것을 본다.

밀천을 적게드려서 많은 利를 보자는 건 별씨 太古적 이야기다.

구태여 상스러운 말을 빌린다면 「돈놓고 돈여기」란 말도 있지 않은가.

다음에 理論 및 技術姿勢의 非進取性인데 勿論 우리大部分의 臨床獸醫師들이 一面에 있어서 매우 熟誠의이며 講習會나 세미나 活動等에서 봐도 年年히 改善되어가는 徵兆를 엿볼수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唯一한 機關誌인 “獸醫界”誌가 모든 會員에게 充分히 熟讀되고 있지 않으며 새獸醫良書紹介斡旋에 달갑지 않은 反應이며 從前의 臨床技術에 對한 不斷한 研究改善의 不足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亦是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進取性을 더 發揮해야 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쯤은 是正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詩한 例이기는 하나 診療簿를 쓰지 않고 怡似구명가개의 外上賣出帳簿처럼해 좋은 데도 있었는데 記錄한다해도自身的 臨床記錄을 통해 貴重한 經驗을 되살리고 이에 改善을 加해나가는 系統的인 새技術開發에 NEL이 될수있을 程度로 着實한 內容의 診療簿記錄을 해나가는 분이 果然 臨床獸醫全員의 몇 %나될 것인가.

이러한 理論技術面에 있어서의 停滯性의 發露는 또 다른面에서도 볼수있으니 별씨 몇年前부터 복이쉬도록 새 臨床經驗의 “獸醫界”誌에의 投稿를獎勵하고 있진만 이것이 우금껏 全혀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기술이더 나오나 못하나간에 우선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慣例의인 臨床收入은 別다른 變動이 없다는 安逸한생각을 걸어치워야한다.

安逸은 언젠가는 둘이킬수없는 落後와 敗亡을 招來하기 마련이다.

이밖에 買入賣出過程에서의 經濟性追求의 無關心이 타던가 顧客增大를 꾀하기 위한 諸 R P 및 써-비스活動의 貧弱等은 例示하면大小로 限이 없을 것이로되 몇 가지만 말해도 器材藥品等의 買入에 있어 團體割引購買를 한다던가 보다 効率의廉價인 即 經濟性이 豐富한 代用藥品處方의 研究라던가 하는 問題에 不斷한 關心이 있어야 할것이다.

投藥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經濟性을 處動物相對하는前提下에서 어떻게하면 雙方이다 價格面에서나 治療成果面에서 보다 効率의인가의 敏感한 經濟的인打算을 앞세워야 할것이다.

들은바로는 어떤분은 急速完治萬能으로 무작정 高價

—(49頁에 계속)—

反應하기 때문에 實用化되지 않았다. 平戸(1962)는 Tp凍結融解抗原을 使用하여 豚血清의沈降反應을 檢討한結果 本反應陽性血清은 DT CFT HA等과 平行해서 陽性를 나타내나 그 出現時期와 他の反應에 比해서 늦으며 더욱이 感染初期에는 摘發이 힘들다고 한다.

### 豫 防

先天的感染에는 母體胎盤感染 後天的感染에 對해서는 不確實한 點이 많다. 發病中의 尿糞 乳汁分泌物에서 排泄하기 때문에 寄生虫性生活環의 廉斷 即 環境을 恒常 清潔이 하며 소독을 하고 繁養이 좋은 飼料로서 健康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Tp症의 Tp虫의 生活環은 解明이 充分치 않으며 媒介體를 含有한 感染經路가 不充分하기 때문에 豫防에도 困難한 點이 많다.

### 治 療

實驗動物에 있어서 本症의 治療에 有効한 藥劑로서 다음의 들 수 있는 藥이 있다. 그러나 人과 家畜의 治療效果는 아직 確實치 않다.

#### Salfonamide系

Sabin及 warren(1941) 처음으로 Salfonamide가 實驗 Mice의 効力이 있다고 報告하였다. 實驗結果로서 Sulfonepyrazine(피라징) Sulfame-razine(메라징) Sulfadiazine(디아징) 等이 効力이 있다고 한다.

Salfonamide系의 Tp에 對한 作用機序는 即 빠(P-amino benzoic acid) 아미노 安息香酸은 發育素인 葉酸의 構造에 一部를 가지고 있으나

( 86 頁에서 계속 )

藥處方을 信條로 하는 모양이나 그다지普遍的인 方法은 못될 줄로 안다.

그리고 또한 한걸음더 나아가 畜主의 心理的効果에도相當히 神經을 많이 기우려야 만한다

펫넬이 번연히 붙은 原包裝藥品을 그대로 준다던지 하는 일은 지금쯤은 좀체로 볼수 없겠지만 하여튼 能熟한 處方과 再包裝은 빼놓을 수 없는 經營手段이다

最近어떤분은 마이신 같은 것도 약봉지에 싸지 않고 캡슐"에 다넣어 준다는 말을 들려주었다.

P R나 써-비스에 있어서도 어떤분은 市郡關係職員이나 家畜產指導員들을 完全히 등지고 일하는 것을 더러본다.

官權에 阿附나하고 있으면서 그 그늘밑에서 적당히 먹고 살라는 비루한 生活姿勢의 勸誘가 아니라 좀더

Sulfonamid系는 Paraamino 安息香酸과 構造上類似하며 後者가 葉酸에 들어가는 것을 阻止함으로 Tp虫의 發育을 抑制한다.

#### 2.4 치아미노파리미징(diamino Pyrimidine)

EyLes(1952) 本系에 屬하는 Pyrimethamine (2.4 diamino 5-P-chlorophenyl 6 etyl pyrimidine (商名 Darprin)이 Mice 實驗에 依해서 本症에 効力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本劑는 貧血 其他副作用이 있다고 한다. 豚 1日 5~510mg/1kg 주면 效果가 있다 한다. 本藥의 治療는 人에 對해서는 不適當하고 不完全治療는 Tp虫을 慢性化시킨다. 그러나 Sulfa劑와 併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 相乘作用으로서 單獨作用때에 比해 6倍以上에 達한다고 한다. 그러나 慢性感染症에 Cyst에는 效果가 없고 또宿主에 따라多少 差가 있다.

#### 수루홍劑(Sulfone)

수루홍劑中(Sulfone) 4,4디아미노지휘니루스루홍(diamino diphenyl sulfone)이 效果가 있으나 毒性이 強하다.

#### 抗生物質

구로로베트라 사이크링(Aureomycine Spiramycin Chlorotetracycline)에 效果를 보며 Tetracycline 베트라사이크링(Tetracycline) 구로로마이세친(Chloromycetin)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等 效果가 있다고 한다. 本症의 治療法에 對해서는 아직 實驗途上이며 cyst를 가지는 慢性感染의 治療及毒性에 對해서는 今後의 研究題目이다. <筆者=家畜衛生研究所>

積極的인 經營姿勢에로 進出하자는 말이다.

그분들에 친 大嫌히 慄懼스러운 말이지만 그분들이야 말로 가장좋고 손쉬운 既存 P R 루-트인때 어째서 그들과 등지고 있는가 말이다 어떤문은 年例의으로 혹은 一齊防疫注射實施나 僻地巡迴診療時等을 利用해서 油印物等으로 積極的인 PR活動을 하고 있는 것을 가끔본다.

그분들은 從前에 其同一 地域에서 걸우지 못했던 다른 臨床獸醫師의 絶望의 壁을 完全히 깨트려놓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經營頭腦는 이렇게 자꾸만 높은 領域으로 절 새없이 하나하나 發展을 거듭해 나가야할 것이다.

바야흐로 全般的인 近代化的 물결과 더부려 家畜病院革命論을 提起할 重大한局面에 處했다고 보는 것이다.

<筆者=本誌編輯委員>